

2015년 일본 영화산업 결산



## 2015년 일본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일본 통신원 **황균민**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년 4월 15일**

-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

# Contents

---

## 01

2015 년 영화산업 총괄 개요 / 1

---

## 02

제작현황 / 2

---

## 03

극장 시장 분석 / 11

---

## 04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 / 15

---

## 05

한국영화 개봉 현황 / 16

---

## 06

2016 년 영화산업 전망 / 17

---

## 07

자료출처 / 18

**1. 2015년 영화산업 총괄 개요**

2015년 일본영화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흥행수입과 관객 동원수 모두 증가한 양적 성장을 이룬 해라 할 수 있다. 전체 영화 흥행수입은 4.9% 늘어난 2,171억 1,9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00억 8,500만 엔이 증가했다. 흥행수입 발표를 시작한 2000년 이후 2010년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관객 동원수는 2014년 1억 6,100만 명에서 4% 증가해 1억 6,630만 명으로 이는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전체 작품 개봉 편수는 1,136편으로 3년 연속 천 편 이상을 웃돌았다. 공개편수는 작년보다 48편 감소했지만 2013년 이후 꾸준히 천편 대를 이어오고 있다. 영화별로는 일본영화가 581편, 외화가 555편이 극장에 걸렸고, 2012년 이후 계속되는 외화의 회복세가 2015년에도 이어졌다.

스크린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 역시 단관계 극장 등의 폐관으로 극장수 자체는 감소했다.

**(표1) 2015년 일본영화 시장 현황**

항목		2015년		전년대비	2014년	
입장객수		166,630,000명		103.4%	161,116,000명	
흥행수입	전체	2,171억 1,900만 엔		104.9%	2,070억 3,400만 엔	
	일본영화	1,203억6,700만 엔	55.4%	99.7%	1,207억1,500만 엔	58.3%
	외화	967억5,200만 엔	44.6%	112.1%	863억1,900만 엔	41.7%
공개편수	전체	1,136편			1,184편	
	일본영화	581편			615편	
	외화	555편			569편	
스크린수		3,437			3,364	

일반사단법인 영화제작자연맹(2016년 1월 발표)

**(표2) 공개편수 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일본영화	408	411	554	591	615	518	94.5
외화	308	358	429	526	569	555	97.5
합계	716	799	983	1,117	1,184	1,136	95.9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

외화의 흥행수입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967억5,200만 엔을 기록했고 일본영화의 흥행수입은 작년의 1,207억 1,500만 엔에서 다소 감소한 1,203억 3,670만 엔이었다. 일본영화 시장에서 흥행 지표인 10억 엔을 달성한 작품은 일본영화 38편, 외화 22편으로 집계됐다.

(표3) 흥행수입(백만 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
일본영화	118,217	99,531	128,181	117,685	120,715	120,367	99.7
외화	102,521	81,666	67,009	76,552	86,319	96,752	112.1
합계	220,738	181,197	195,190	194,237	207,034	217,119	104.9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

## 2. 제작현황

일본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데이터는 따로 집계하는 곳이 없다. 메이저 기업의 관련 조직인 '일본제작자연맹'이 영화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으나 제작 현황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따른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제작 현황과 관련한 사항은 신문 및 잡지 기사, 영화 기관의 보고서 등을 참고해 보면 상업 영화 편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독립영화 제작편수는 증가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니 시어터가 작품 선정에 고심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 독립영화 제작편수가 급증했다. 이는 영상 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현상으로 2000년 전후 연간 500~600편이었던 제작편수는 2014년 시점에 1,184편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단관계 극장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한 편 당 극장에 걸리는 기간은 점점 짧아질 수 밖에 없어 독립영화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3. 극장 시장 분석

### 1) 극장 현황

2014년과 마찬가지로 단관계 극장 및 멀티플렉스 개폐관은 2015년에도 진행됐다. 우선 전국 스크린수는 2013년 3,319개, 2014년 3,364개에 이어 2015년 말 기준으로 3,437개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새로이 116개의 스크린이 추가되고 43개의 스크린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스크린수는 73개가 증가한 셈이다. 멀티플렉스는 11곳에 새롭게 오픈했다.

(표4) 2015년도 멀티플렉스 체인현황

명칭	운영사	극장수	스크린수
이온 시네마	이온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83	702
TOHO 시네마즈 외	TOHO 시네마즈 주식회사	67	626
유나이티드 시네마, 시네플렉스	유나이티드 시네마 주식회사	38	338
MOVIX	주식회사 쇼치쿠 멀티플렉스 시어터즈	27	258

109 시네마즈 외	주식회사 도큐 레크리에이션	19	175
T췌이 외	주식회사 티췌이	21	201
코로나 시네마 월드	주식회사 코로나 월드	13	129
시네마 선샤인	사사키 흥업 주식회사	13	99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

도호는 지난 해 4월 17일, 변화가인 신주쿠 가부기췌에 도호 시네마 신주쿠를 옹프냈고 6월에 MX4D를 추가로 옹프해 스크린수를 12개로 늘렸다. 이후 월 평균 3억 엔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췌세다. 이 외에 도쿄 근교의 사이타마와 규슈 지역의 오이타에도 자사 멀티플렉스 극장을 옹프냈으며 롯폰기 힐즈의 극장에는 대대적인 리뉴얼을 실시했다.

한편, 이온 시네마즈는 가카와현에 있는 자사 멀티플렉스의 영업을 재개했고 도쿄 레크리에이션도 후타타마가와, 오사카에 109 시네마즈를 옹프했다.

멀티플렉스 중에서 109 시네마즈 MM 요코하마와 훗카이도의 에니와 도호 시네마 8이 2015년 폐업했다. YEBISU GARDEN CINEMA가 재개하고 3곳의 단관 극장이 개관한 반면 폐관 및 휴관을 알린 단관 극장은 7곳에 이른다. 2015년 극장의 개관 및 폐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5) 2015년 개관, 췌관**

지역	극장명	스크린수
도쿄	YEBISU GARDEN CINEMA	2
	TOHO 시네마즈 신주쿠	12
	109 시네마즈 후타타마가와	10
	유직 아사가야	1
	업링크	3
가나가와	시네마노베첸토	1
사이타마	TOHO 시네마즈 라라포와 후지미	9
군마	다카사키 덴키관	1
오사카	이온 시네마 시조나와테	11
	109시네마즈 오사카 엑스포시티	11
효고	어스 시네마즈 히메지	12
나라	유나이티드 시네마 가시하라	9
가가와	이온 시네마 우타즈	7
오이타	TOHO 시네마즈 아뮤프라자 오이타	10
훗카이도	이온 시네마 아사히카와 역전	8
오키나와	시네마 라이컴	9

합계(개관)	116
--------	-----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

**(표6) 2015년 폐관, 휴관**

지역	극장명	스크린수
도쿄	TOHO 시네마즈 유락좌	1
	시네마트 롯폰기	4
가나가와	109 시네마즈 MM 요코하마	11
이바라키	쓰치우라 센트럴(스크린수 4→2)	2
나가노	우에다 덴키관	2
시즈오카	누마즈 다카라즈카	1
	누마즈 유락좌	1
오사카	도비타 시네마	1
	도비타 도에이	1
효고	히메지 대극 시네마	3
후쿠오카	이이즈카 시네마 센트럴	2
	유나이티드 시네마 나카마 (스크린수 16→12)	4
구마모토	야츠시로 역전 도에이	1
홋카이도	유나이티드 회관 유바리	1
	에니와 도호 시네마 8	8
합계(폐관)		43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

2) 극장요금

일본의 통상적인 극장요금은 1,800엔으로 대학생은 1,500엔, 초중고학생은 1,000엔이다. 이 외에 특정 요일에 여성 관객에게 할인을 해주거나(레이디스 데이) 노약자 우대(시니어) 요금, 커플 할인 요금, 장애인 할인 요금 등이 있으며 각 극장별로 다양한 할인 요금을 책정해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3D 요금은 2,200엔이며 이 역시 대상에 따라 할인 요금을 책정했다. 대략적인 극장요금은 아래와 같다.

**(표7) 영화관 입장료**

구분	일반영화	3D
일반	1,800엔	2,200엔
대학생	1,500엔	1,900엔

초중고	1,000엔	1,400엔
-----	--------	--------

영화관 평균 입장료는 2015년 처음으로 1,300엔 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3D와 아이맥스, 4DX 영화의 상영이 입장요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도호는 신주쿠, 롯폰기 등 주요도시 8개 극장에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입장료를 2000엔으로 책정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기존의 극장 요금보다 200엔 비싼 금액으로, 일각에서는 2017년 시행 될 소비세 인상에 대비한 선행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타워즈>의 팬층이 확고한만큼 금액 인상이 관객 동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8) 영화관 평균 입장료 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
평균입장요금(엔)	1,266	1,252	1,258	1,246	1,285	1,303	103.1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

### 3) 자국영화 매출액

2015년 일본영화 흥행수입의 상위권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도호의 독주 또한 파죽지세다. 흥행수입 1위에 오른 작품은 <극장판 요괴워치 : 탄생의 비밀이다냥!>으로 총 78억 엔의 수입을 올렸다. 이 수치는 2013년 흥행 1위작 <바람의 언덕>의 120억 2,000만 엔, 2014년 흥행 1위작 <영원의 제로>의 87억 6,000만 엔에는 못미친다. 뒤를 이어 순위권에 오른 작품은 58억 5,000만 엔을 기록한 <괴물의 아이>, 36억 7,000만 엔을 기록한 <히어로>다.

흥행수입 30억 엔을 넘긴 작품은 7작품으로 2013년의 8작품, 2014년의 9작품보다 적었고, 그 결과 10위권 내 작품 흥행수입 또한 감소했다. 2015년 1위에서 10위까지의 영화 흥행수입 총액은 421억 7,000만 엔이며, 2013년은 453억 8,000만 엔, 2014년은 495억 2,000만 엔을 기록했다.

한편, 흥행수입 10위권 내 포진한 작품들은 대부분 애니메이션이다. 3위 <히어로>, 7위 <진격의 거인 ATTACK ON TITAN>, 8위 <비리갸루>, 10위 <영화 암살교실>은 애니메이션 작품이 아니지만 <진격의 거인 ATTACK ON TITAN>과 <영화 암살교실>은 애니메이션의 실사판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애니메이션 작품은 단 두 편만이 10위권에 오른 셈이다. 또한 상위 10위권에 랭크된 영화 중 공동 8위에 오른 <러브 라이브! 더 스쿨 아이돌 무비>(쇼치쿠)와 6위의 <드래곤볼 Z: 부활의 「F」>(도에이)를 제외하면 모두 도호가 배급한 작품으로 13년간 이어진 도호의 흥행 파워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영화 흥행수입 TOP 10은 다음과 같다.

(표9) 2015년 일본영화 흥행수입TOP 10

순위	개봉일	작품명	수입(단위:억 엔)	배급사
1	2014년 12월	극장판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다냥!	78억 엔	도호
2	7월	괴물의 아이	58억 5천만 엔	도호
3	7월	히어로	46억 7천만 엔	도호
4	4월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	44억 8천만 엔	도호
5	3월	도라에몽 노비타와 우주표류기	39억 3천만 엔	도호
6	4월	드래곤볼 Z: 부활의 「F」	37억 4천만 엔	도에이
7	8월	진격의 거인 ATTACK ON TITAN	32억 5천만 엔	도호
8	5월	비리가루	28억 4천만 엔	도호
8	6월	러브 라이브! 더 스쿨 아이돌 무비	28억 4천만 엔	쇼치쿠
10	3월	영화 암살교실	27억 7천만 엔	도호

일반사단법인 영화제작자연맹 (2016년 1월 발표)

4) 외국영화의 매출액

흥행수입 1위는 <쥬라기 월드>로 총 95억 3천만 엔을 수입을 거둬들였고 2위는 91억 8,000만 엔을 기록한 <빅 히어로>, 3위는 57억 3,000만 엔을 기록한 <신데렐라>가 각각 랭크됐다. 하지만 1-3위 세 작품의 흥행수입을 답 합쳐도 2014년 메가히트작 <겨울왕국> (디즈니 배급) 한 편이 벌어들인 254억 8천만 엔에는 다소 못미친다.

배급사 파워 면에서는 여전히 디즈니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상위 10편 중 디즈니 작품이 4편이며 도호도아가 3편, 파라마운트 픽처스 재팬(PPJ)가 2편, 도호가 1편을 배급했다. 흥행수입 베스트 10은 다음과 같다.

(표10) 2015년 외화 흥행수입TOP 10

순위	개봉일	작품명	수입	배급사
1	8월	쥬라기 월드	95억 3천만 엔	도호도아
2	2014년12월	빅 히어로	91억 8천만 엔	디즈니
3	4월	신데렐라	57억 3천만 엔	디즈니
4	7월	미니언즈	52억 1천만 엔	도호
5	8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51억 4천만 엔	PPJ
6	7월	인사이드 아웃	40억 4천만 엔	디즈니
7	4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35억 4천만 엔	도호도아
8	7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32억 1천만 엔	디즈니
9	7월	터미네이터 제니스	27억 4천만 엔	PPJ

10	8월	테드 2	25억 1천만 엔	도호도와
----	----	------	-----------	------

일반사단법인 영화제작자연맹 (2016년 1월 발표)

2015년 한해 동안 총 536편의 외화가 상영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영화가 208편으로 단연 선두였으며 영국 45편, 한국 43편, 프랑스 39편, 캐나다 13편, 독일 10편이 뒤를 이었다. 그 외 국가의 영화는 모두 한자릿수 개봉에 그쳤다.

**(표11) 제작국가별 외화수입 현황**

미국	208
영국	45
한국	43
프랑스	39
캐나다	13
독일	10
중국, 홍콩	9
인도	9
스페인	6
중국	6
홍콩	6
호주	5
이탈리아	5
러시아	4
미국, 영국	4
타이완	3
미국, 프랑스	3
영국, 미국	3
뉴질랜드	2
덴마크	2
태국	2
스위스	2
영국, 프랑스, 미국	2
미국, 캐나다	2
노르웨이	2
이스라엘	2

일반사단법인 외국영화수입배급협회(2편 이상 취합)

5) 주요 배급사 상영편수, 매출액 등

배급사별 흥행 성적을 살펴보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도호의 독주가 계속됐다. 지난 한 해 도호는 33편을 배급해 총 731억 5,117만 3,378엔의 흥행수입을 올렸는데, 이로써 전년도 역대 4위의 기록에 해당하는 729억 엔을 또 한번 갱신했다. 2014년의 경우 <영원의 제로>와 <도라에몽 스탠바이미>가 각각 87억 6,000만 엔, 83억 8,000만 엔을 벌어들이며 전체 흥행수입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올해는 <요괴위치 탄생의 비밀이다냥!>의 78억 엔이 가장 높은 흥행수입이지만, 20억 엔 이상 수입을 올린 작품이 15편에 달하며, 10억 엔 이하의 수입을 낸 작품은 불과 5편에 불과했다. 그 결과 도호는 일본영화 흥행수입 TOP10에 자사 영화 8작품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쇼치쿠의 2015년 성적은 다소 초라하다. 일본영화 흥행수입 TOP10에 <러브 라이브! 더 스쿨 아이돌 무비> 단 한 편만을 간신히 올렸으며 이 작품이 2015년 30편의 쇼치쿠 라인업 중 흥행작으로 수입은 28억 4,000만 엔이다. 뒤를 이은 흥행작은 <천공의 별>로 흥행수입은 10억 8,000만 엔, 그 다음 흥행작은 <그래스호퍼>로 10억 엔의 흥행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다. 나머지 작품들의 흥행수입은 모두 10억 엔 이하다.

(표12) 주요 배급사 2015년 흥행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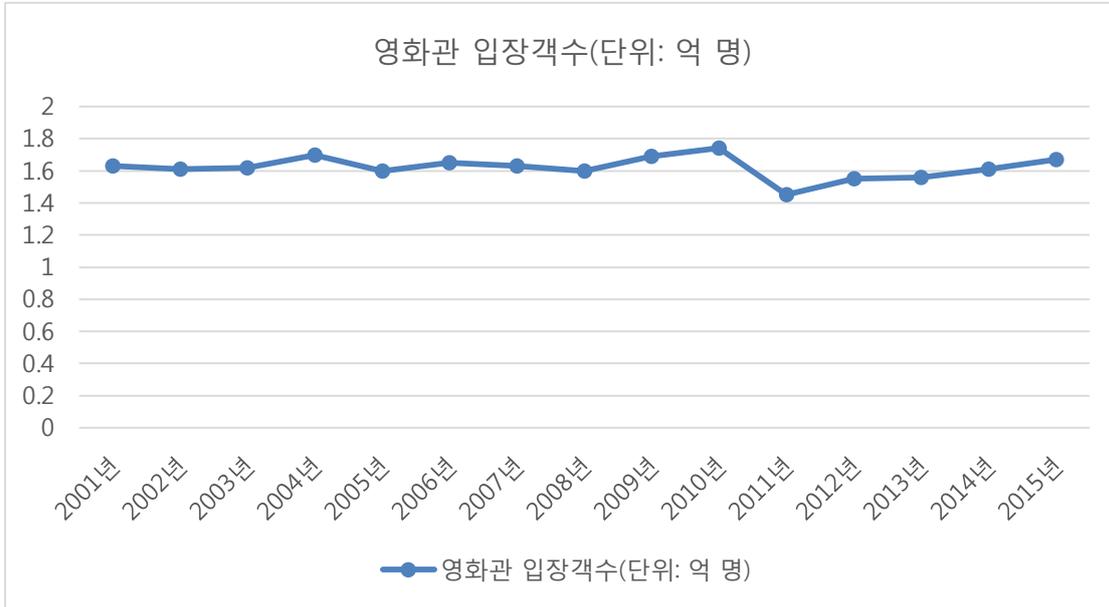
배급사명	상영편수	연간 흥행수입	전년대비(%)
도호	33편(공동배급 1편)	731억 5,117만 3,378엔	100.3%
쇼치쿠	30편 (일본영화 27편, 공동배급 5편, 외화 3편)	115억 7,850만 600엔	83.4%
도에이	33편	109억 4,340만 350엔	94.2%
카도카와	21편 (일본영화 11편, 공동배급 3편, 외화 10편)	30억 5,400만 8,493엔	119.5%
도호도와	11편(공동배급 1편)	227억 4,812만 9,945엔	675.5%
워너	21편 (일본영화 3편, 공동배급 1편, 외화 18편)	114억 7,402만 4,978엔	70%
월트 디즈니	9편	294억 9,928만 7,500엔	74.5%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에서 재구성

6) 관객수

2015년 일본 영화시장의 입장객수는 전년 대비 3.4% 성장한 166,630명으로 551만4,000명이 늘어났다.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했다고는 하나 입장객수의 추이는 불안정한 추세로 2000년대 최고치였던 2010년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프1) 영화관 입장객수 추이



garbagenews (2016년 2월 2일 기사)

7) 관객 점유율 및 1인당 관람횟수

일본 내에서 관객 점유율이나 관람횟수와 관련된 데이터에 관한 접근도는 매우 떨어진다. 그나마 총무성에서 발행하는 <세계의 통계>나 세계 각국의 여러분야에 관한 통계 자료를 올려놓은 홈페이지, <통계 교토>와 같이 각 지자체의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들은 지리·기상, 인구, 무역, 농림수산업 등 모든 분야의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영화 관련 통계는 교육·문화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최신성 및 정밀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5년 총무성의 집계는 2011년도 데이터까지만 소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연간 영화 관람횟수는 1.3으로 인도 2.5, 미국 4.5, 영국 3.1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2) 1인당 연간 영화 관람횟수



<세계의 통계 2015>(일본 총무성 발행)

8)박스 오피스

2015년 박스 오피스 순위 20위까지를 살펴보면 일본영화가 11편, 미국영화가 6편이며 2014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애니메이션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표13) 2015년 박스 오피스 TOP20

순위	국가	작품명	흥행수입	배급회사
1	미국	쥬라기 월드	95억 3,000만 엔	도호도와
2	미국	빅 히어로	91억 8,000만 엔	디즈니
3	일본	극장판 요괴워치 : 탄생의 비밀이다냥!	78억 엔	도호
4	일본	괴물의 아이	58억 5,000만 엔	도호
5	미국	신데렐라	57억 3,000만 엔	디즈니
6	미국	미니언즈	52억 1,000만 엔	도호
7	미국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51억 4,000만 엔	파라마운트 재팬
8	일본	히어로	46억 7,000만 엔	도호
9	일본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	44억 8,000만 엔	도호
10	미국	인사이드 아웃	40억 4,000만 엔	미국
11	일본	도라에몽 노비타의 우주 영웅기	39억 3,000만 엔	도호
12	일본	드래곤볼 Z: 부활의 「F」	37억 4,000만 엔	도에이
13	미국	분노의 질주: 더 세븐	35억 4,000만 엔	도호도와
14	일본	진격의 거인 ATTACK ON TITAN	32억 5,000만 엔	도호
15	미국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32억 1,000만 엔	디즈니
16	일본	비리가루	28억 4,000만 엔	도호
17	일본	러브 라이브! 더 스쿨 아이돌 무비	28억 4,000만 엔	쇼치쿠
18	일본	영화 암살교실	27억 7,000만 엔	도호
19	미국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27억 4,000만 엔	파라마운트 재팬
20	일본	Boruto -나루토 더 무비-	26억 2,000만 엔	도호

키네마 준보 2015년3월 하순호

일본영화 중 20억 엔 이상의 흥행수입을 올린 작품들은 대체로 애니메이션, 가족, 도호 작품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도호와 월트 디즈니 파워는 여전했다.

외화와 일본영화 전체에서 100억 엔을 넘는 초대박 흥행작은 나오지 않았지만 <극장판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다냥!>, <괴물의 아이>, <쥬라기 월드>, <빅 히어로>, <신데렐라>

등이 흥행수입 50억 엔대를 넘어서면서 전체 흥행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50억 엔 이상의 흥행수입을 올린 작품은 일본영화 2편, 외화 5편으로 총 7작품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강세도 여전한 가운데 일본영화 흥행수입 상위 10위 가운데 6편이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다. 작년에 이어 도호의 파워 또한 막강해 올해는 10위권에 9편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 4.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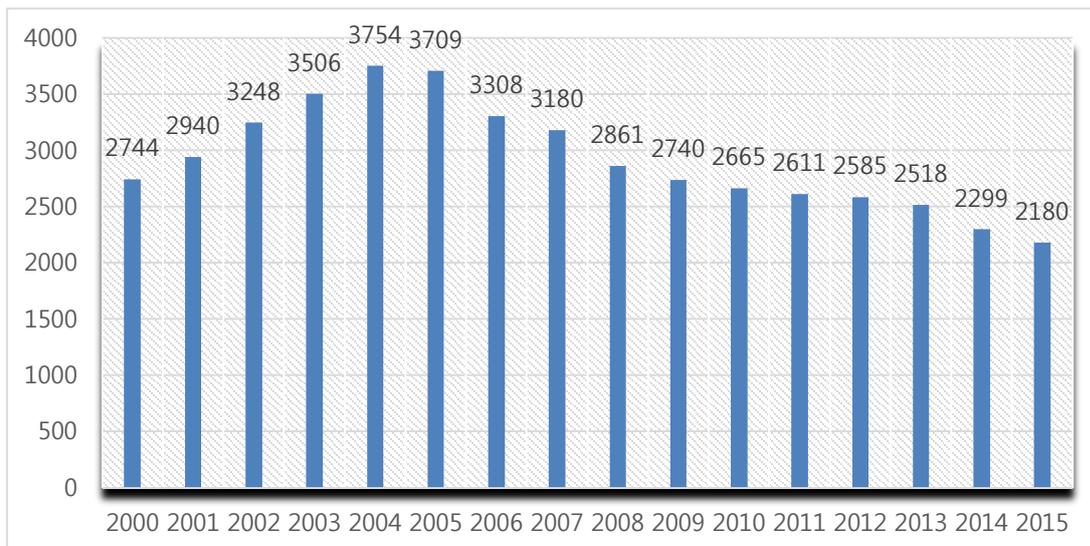
(표14) 비디오 소프트 전체 유통 매상

	비디오 소프트 전체 매상액			비디오 소프트 전체 매상수량		
	전체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수량	구성비	전년대비
판매용	1,626억5,000만 엔	74.6%	97.1%	42,236,624	58.3%	86.6%
대여용	542억 6,500만 엔	24.9%	88.2%	29,677,110	40.9%	99.5%

일반사단법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일본영상소프트협회(JVA)가 집계한 2015년 일본의 DVD, 블루레이 등 영상 소프트 출하 총액은 2,180억 엔으로 전년 대비 94.8%로 약 5포인트 감소했다. 판매용과 대여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판매용이 1,626억 엔으로 전년 대비 97.1%, 대여용이 약 5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2%로 모두 감소했다. 이는 업계 출하액이 최고를 찍었던 2004년에 비해 58.1%까지 떨어지 수치로 이는 1,574억 엔이 적은 금액이다. 수량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감소세가 눈에 띈다. 특히 판매용 소프트는 전년 대비 약 14포인트 떨어졌다.

(그래프3) 영상소프트 출하액 추이(단위 억엔)



일반사단법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13년 수요가 정점을 찍은 대여시장 규모는 계속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점포에서의 월 평균 소프트 사입비는 2014년 대비 96.8%로 1,922만 원을 기록했지만 소프트 장당 사입 가격이 인하된 덕분에 월 평균 소프트 매출은 2,107개로 전년 대비 128.4%를 기록,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대여점수도 감소 추세로 2000년 12월 6,257개였던 점포수는 2015년 약 3,130여점으로 반감했다. 렌탈점 평균 회원수 역시 2014년 대비 7.3%가 감소한 16,002명을 기록했다. 성비로 보면 여자 회원수보다 남자회원수가 더 많았고 57.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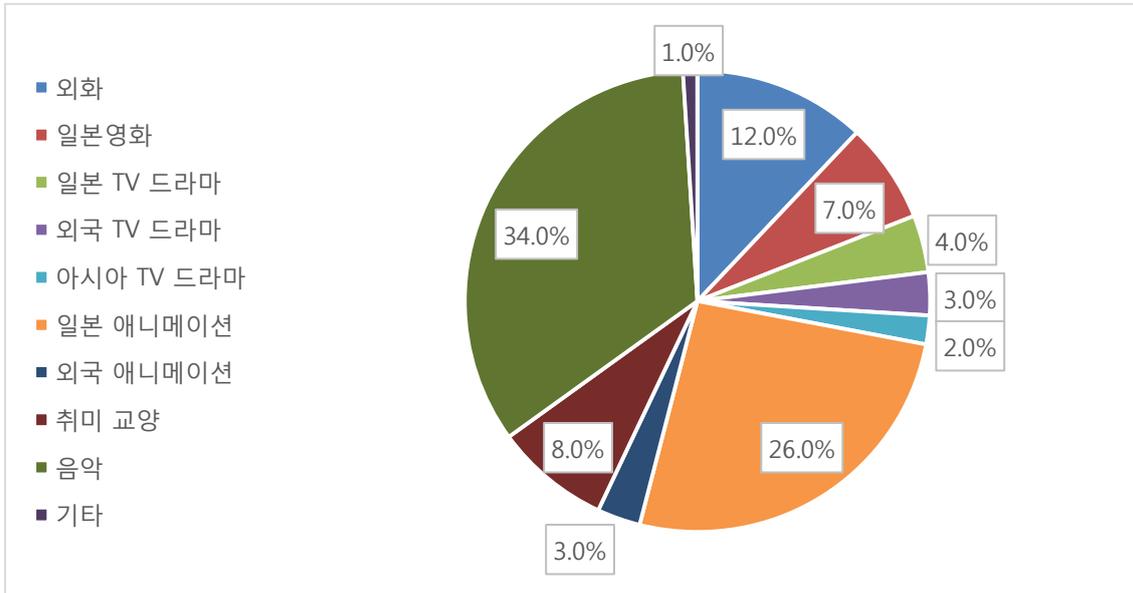
(표15) 비디오 렌탈점 실태조사

2015년 렌탈점 관련 수치(괄호는 전년 대비)			
렌탈 부문 월평균 매출	총 매출 5,243만 원(100.9%)		
	DVD		BD
	5,031만 원(100.9%)		237만 원(100.0%)
월평균 사입	DVD		BD
	1,922만 원(96.8%)		113만 원(104.6%)
	2,107개(128.4%)		63개(110.5%)
회원수	총 회원수 16,002명(92.7%)		
	남자 57.7%		
	여자 42.3%		

일반사단법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장르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판매용 소프트의 경우 라이브 영상 및 음악 클립 등 음악 관련 소프트가 3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애니메이션이 29%, 외화가 12%, 일본영화가 7%를 차지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드라마 관련 소프트는 모두 5%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4) 영상소프트 장르별 연간 금액 구성비(판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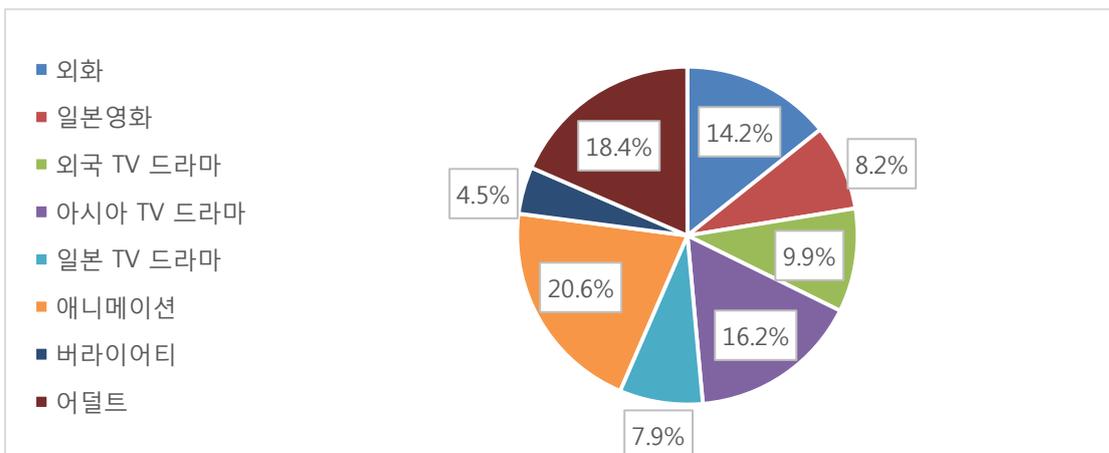


GFK 라이프스타일 트래킹 재팬

대여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20.6%로 선두를 기록했지만, 판매용 소프트웨어에서 약세였던 드라마 점유율이 모두 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아시아권 TV 드라마가 16.2%, 외화가 14.2%, 유럽·미국 TV 드라마가 9.9%, 일본영화가 8.2%로 뒤를 이었다. 판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렌탈 소프트웨어 역시 애니메이션이 강세인 반면 영화는 저조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길을 끄는 수치는 대여 소프트웨어의 드라마 점유율로 드라마 수요는 2004년 한류 열풍을 몰고왔던 <겨울 소나타>, 미국의 인기 드라마 <24> 이후 일정한 수요가 존재한다.

(그래프5) 렌탈용 소프트웨어 연간 대출수 장르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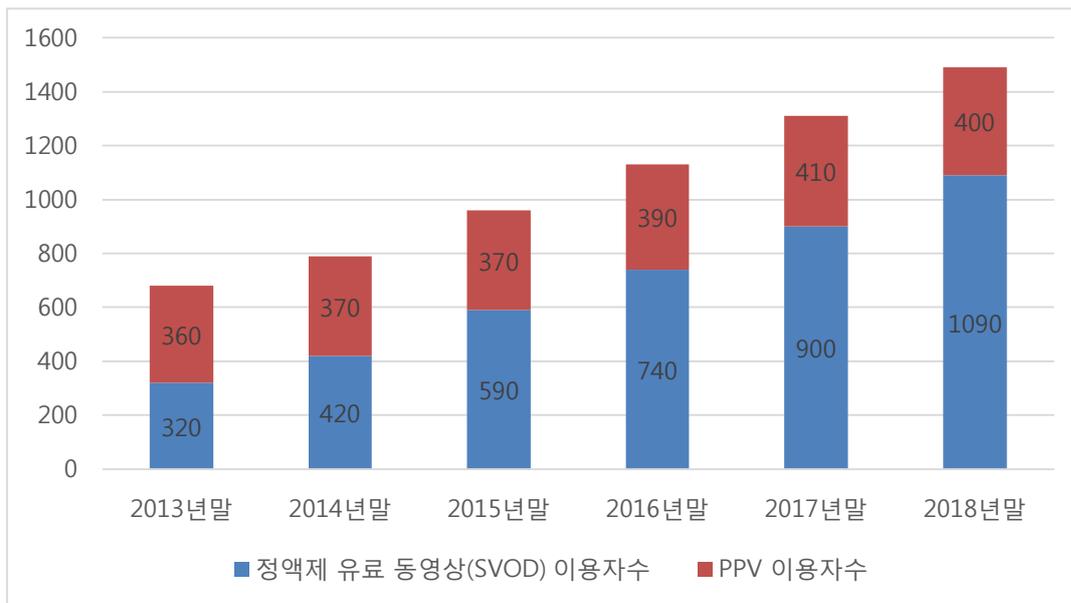
CDV JAPAN

최근 DVD, 블루레이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 시장에는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각 회사들은 동영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서비스 확충과 이용자 확대에 여념이 없다. 2015년 일본 동영상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넷플릭스의 일본 진출로 업계에서는 2015년을 <동영상 서비스 원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일본의 동영상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7.9% 증가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2014년 시장규모는 1,255억 엔으로 2015년에는 1,605억 엔으로 증가했다. 이 중 정액제 동영상 서비스(SVOD)가 66.8%, 렌탈형 동영상 서비스(TVOD)가 18.3%, 동영상 판매(EST)가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5년 유료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도 960만명으로 2014년 790만 명에서 170만 명 증가했다. 이용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정액제 서비스 이용자수는 2018년 시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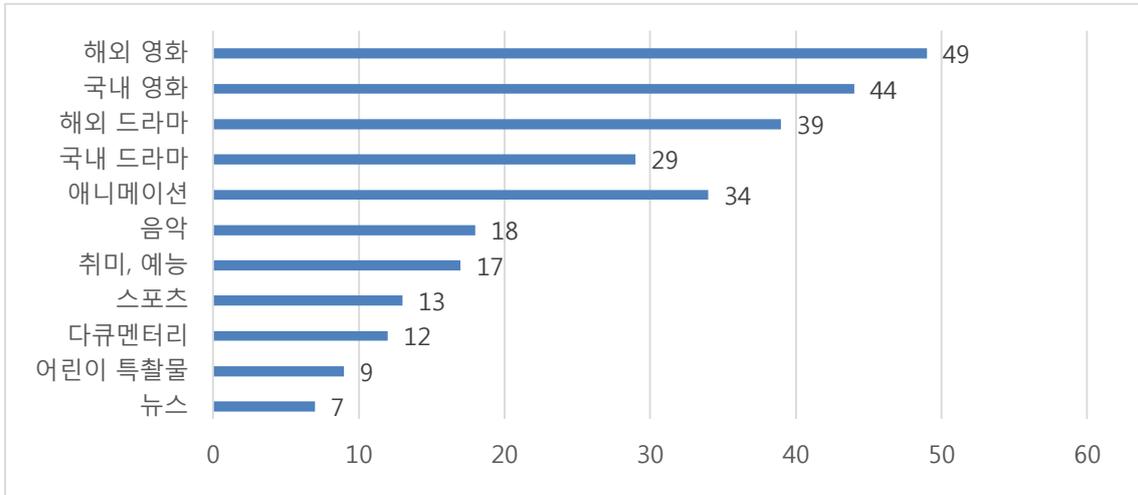
(그래프6) 정액제 유료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수 예측



2015년 유료 동영상 서비스 이용 동향에 관한 조사(ICT종합연구소)

이용 콘텐츠의 경우, 해외영화 수요가 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내 영화(일본영화)가 44%, 해외드라마가 39%, 애니메이션 34%, 국내 드라마(일본드라마)가 29%를 기록했다. 그 밖에 뮤직 비디오 등의 이용율은 18%, 취미&엔터테인먼트가 17%, 스포츠가 13%였다.

(그래프7) 유료 동영상 서비스의 주요 이용 콘텐츠(이용율 %)



2015년 유료 동영상 서비스 이용 동향에 관한 조사(ICT종합연구소)

### 5. 한국영화 개봉 현황

2015년, 일본에서는 총 43편의 한국영화가 개봉됐다. 2014년 61편과 비교하면 18편이 감소했다. <타짜 신의 손>, <국제시장>, <군도: 민간의 시대>, <조선명탐정 2 사라진 놈의 딸>, <베테랑> 등 굵직한 흥행작들과 <도희야>, <한공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등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영화들이 개봉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개봉 편수가 줄었음에도 공연실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SMTOWN THE STAGE>와 <GROW: 인피니트의 리얼 청춘 라이프>는 확실한 타겟층이 있기에 개봉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개봉작들 가운데 2013년 작품이 8편, 2014년 작품이 30편으로 2015년작은 불과 5편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 일본에서 개봉된 한국영화는 다음과 같다.

(표16) 2015년 일본 공개 한국영화

No.	타이틀	제작연도	감독	출연배우
1	타짜-신의 손	2014	강형철	T.O.P, 신세경, 곽도원
2	SMTOWN THE STAGE	2015	배성상	강타, 보아, 동방신기
3	당신을 주문합니다	2015	안길호	유노윤호, 김가은
4	좋은 날	2014	권혁찬	소지섭, 김지원
5	남자가 사랑할 때	2013	한동욱	황정민, 한혜진
6	몬스터	2014	황인호	이민기, 김고은
7	하이힐	2013	장진	차승원, 오정세
8	패션왕	2014	오기환	주원, 설리, 안재현
9	캐치미	2013	이현중	주원, 김아중

10	피끓는 청춘	2014	이연우	박보영, 이종석
11	제보자	2014	임순례	박해일, 유연석
12	강남 1970	2014	유하	이민호, 김래원
13	상의원	2014	이원석	한석규, 고수
14	기술자들	2014	김홍선	김우빈, 김영철
15	황제를 위하여	2014	박상준	이민기, 박성웅
16	노브레싱	2013	조용선	서인국, 이종석
17	스물	2014	이병헌	김우빈, 준호
18	레드 카펫	2013	박범수	윤계상, 고준희
19	GROW: 인피니트의 리얼 청춘 라이프	2014	김진수	인피니트
20	마담 뺱덕	2014	임필성	정우선, 이솜
21	도희야	2014	정주리	배두나, 김새론
22	오늘의 연애	2014	박진표	이승기, 문채원
23	국제시장	2014	윤제균	황정민, 김윤진
24	췌시봉	2015	김현석	정우, 김윤석
25	우아한 거짓말	2013	이한	김희애, 고아성
26	장수상회	2014	강제규	박근형, 윤여정
27	베테랑	2015	류승완	황정민, 유아인
28	해무	2014	심성보	김윤석, 박유천
29	군도: 민란의 시대	2014	윤종빈	하정우, 강동원
30	신의 한수	2014	조범구	정우성, 이범수
31	조선명탐정 2 사라진 놉의 딸	2014	김석윤	김명민, 오달수
32	레디액션 청춘	2014	김진무, 박가희, 주성수	이동해, 남성준, 김우린
33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014	이석훈	김남길, 손예진
34	좋은 친구들	2014	이도윤	지성, 주지훈
35	두근 두근 내 인생	2014	이재용	강동원, 송혜교
36	카트	2014	부지영	염정아, 문정희
37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2014	김성호	이레, 이지원
38	무뢰한	2015	오승욱	전도연, 김남길
39	태양을 쏘라	2014	김태식	강지환, 윤진서
40	한공주	2013	이수진	천우희, 정인선
41	끝까지 간다	2013	김성훈	이선균, 조진웅
42	메이드 인 차이나	2014	김동후	한채아, 박기웅
43	맨홀	2014	신재영	정경호, 정유미

## 6. 2016년 영화산업 전망

2016년 40주년을 맞는 가도카와 영화는 설립 당시 팬층인 현재 50~60대, 그리고 현재의 10~20대를 주요 타겟으로 콘텐츠의 충실함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다지며 다양한 기념 사업 및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미 40주년 기념작품으로 지난 3월 <세일러복과 기관총 -졸업- >을 개봉했다. 또한 <이누가미 일족>, <세일러복과 기관총>, <W의 비극>,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 30편의 대표작 DVD를 특별가로 발매했다. 여름에는 가도카와의 작품들을 상영하는 40주년 기념 영화제를 기획 중에 있다.

2015년에는 굵직한 할리우드 대작이 다수 극장에 걸려 주춤했던 해외 영화의 흥행세가 상승 가도에 올랐고 이는 201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개봉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비롯해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레버넌트>, <맥베스>, <헌츠맨: 윈터스 워>, <데드풀>, <거울 나라의 앨리스>, <고스트버스터즈>, <해리포터>의 스피노프 <신비한 동물사전> 등 굵직한 외화들이 개봉 대기 중이다.

애니메이션의 강세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 개봉한 <걸즈 앤 판저>가 2016년까지 기세를 몰아 흥행에 성공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명탐정 코난 : 순흑의 악몽>,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폭풍수면 꿈꾸는 세계 대격돌>, <극장판 유희왕 ~THE DARK SIDE OF DIMENSIONS~>, <기동전사 건담 THE ORIGIN III 새벽의 봉기>, <극장판 원피스 ONE PIECE FILM GOLD>, <요괴워치> 등 인기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 다수 포진해 있다. 외국 애니메이션의 라인업 역시 충실하게 채워져 있어 <주토피아>, <도리를 찾아서>, <마이펫의 이중생활>, <앵그리 버드> 등이 2016년 개봉할 예정이다.

다양한 개봉작들이 대기하고 있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는 <신 고질라> 다. 도호가 12년 만에 제작에 나선 가운데 안노 히데아키가 총감독을, 히구치 신지가 감독을 맡고 하세가와 히로키, 다케노우치 유타카, 이시하라 사토미 등이 출연한다. 이번 영화에 등장한 고지라의 신장은 118.5미터로 역대 최대급이다.

**[자료출처]**

문화통신 <http://www.bunkatsushin.com/>

영화닷컴 <http://eiga.com>

일반사단법인 영화산업단체연합회 <http://www.eidanren.com/>

일반사단법인 일본영화제작자연맹 <http://www.eiren.org/>

일반사단법인 외국영화수입배급협회 <http://www.gaihai.jp/index.html>

<세계의 통계 2015>

AV Watch <http://av.watch.impress.co.jp/>

Film Goes with Net <http://hotakasugi-jp.com/>

FIPA <http://www.fipa-japan.jp/>

Garagenews <http://www.garagenews.net/>

Gfk 라이프스타일 트래킹 재팬 <http://www.gfk.com/jp/>

MOVIE Collection <http://www.moviecollection.jp/>

Variety Japan <http://variety.co.jp/>

Global note <http://www.globalnote.jp/>